



hananimuibetop.org

부록 8f: 성찬 예식 —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이었다

이 페이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할 때에만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들을 다루는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 [부록 8a: 성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법](#)
- [부록 8b: 제사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c: 성경의 절기들 — 오늘날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d: 정결 법 — 성전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e: 십일조와 첫 열매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f: 성찬 예식 —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이었다](#) (이 페이지)
- [부록 8g: 나실인과 서원 법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h: 성전과 관련된 부분적·상징적 순종](#)
- [부록 8i: 십자가와 성전](#)

성찬 예식은 이 시리즈가 폭로하는 사실을 가장 강하게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레위 제사장직을 제거하심으로 어떤 계명들은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그 공백을 채우려고 상징적 “순종”을 발명하여 계명을 대체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제사나 유월절을 대신하는 반복적 빵과 포도주 의식을 결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법을 취소하지 않으셨고, 그것들을 대신할 새 의식을 제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은 토라에서 나온 명령이 아니며, 성전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오해 위에 세워진 인간의 의식입니다.

율법의 원리: 실제 제사, 실제 피, 실제 제단

율법 아래에서 용서와 기쁨은 제사 없는 상징에 묶인 적이 없습니다. 중심 원리는 분명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의 실제 제단 위에 실제 피가 제시될 때 다루어졌습니다(레위기 17:11; 신명기 12:5-7). 이것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 속죄제, 번제, 그리고 유월절 어린양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출애굽기 12:3-14; 신명기 16:1-7).

유월절 식사는 자유형 “기념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이었고, 다음을 포함했습니다:

- 흠 없는 실제 어린양
 - 출애굽기 12:3 — 각 집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양을 택해야 했다.
 - 출애굽기 12:5 — 어린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이어야 했다.
-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뤄진 실제 피
 - 출애굽기 12:7 —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 출애굽기 12:13 — 피는 표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실제 피가 있는 곳을 넘어가셨다.
- 무교병과 쓴 나물
 - 출애굽기 12:8 — 어린양을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 신명기 16:3 —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고, 이레 동안 고난의 떡을 먹으라.
- 정해진 시간과 순서
 - 출애굽기 12:6 — 열넷째 날 해 질 무렵에 잡으라.
 - 레위기 23:5 — 첫째 달 열넷째 날, 정한 때에 유월절이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중앙 성소로 집중시키셨습니다. 어떤 성읍에서든지 제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분의 제단 앞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신명기 16:5-7). 이 모든 체계는 성전에 의존했습니다. 제사 없는 “상징 유월절”이라는 개념은 율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속을 기억한 방식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의 خروج을 어떻게 기억할지 직접 규정하셨습니다. 단순한 묵상이나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라, 그분이 명령하신 해마다의 유월절 봉사였습니다(출애굽기 12:14; 출애굽기 12:24-27).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대답은 어린양의 피와 그 밤의 하나님의 행하심에 연결되어야 했습니다(출애굽기 12:26-27).

성전이 서 있던 때, 신실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소에서 어린양을 잡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먹음으로 순종했습니다(신명기 16:1-7). 어떤 선지자도 “이제부터는 각 나라의 건물에서 빵과 포도주 한 모금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런 대체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이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유월절뿐입니다.

예수와 마지막 유월절

복음서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배반당하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드신 것은 새 이방 종교 의식이 아니라 유월절이었습니다(마태복음 26:17-19; 마가복음 14:12-16; 누가복음 22:7-15).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에 완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همن** 유월절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식탁에서 예수께서는 떡을 떼어 “이것은 내 몸”이라 하였고, 잔을 두고 언약의 피를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6:26-28; 마가복음 14:22-24; 누가복음 22:19-20).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폐하거나, 제사를 취소하거나, 이방인을 위한 새 종교 예식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 참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 율법이 이미 명령해 온 모든 것에 완전한 의미를 부여할 것임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누가복음 22:19), 그 “이것”은 그들이 먹고 있던 유월절 식사였지, 율법과 성전과 제단에서 끊어진 완전히 새로운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입에서, 일정과 규칙과 성직 체계를 가진 “성전과 무관한 새 의례”를 세우는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작은 획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5:17-19). 예수께서는 “내 죽음 후에는 유월절을 잊고, 어디서든 빵과 포도주 예식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이 제거된 것 —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누가복음 21:5-6). 서기 70년에 이 일이 일어나자 제사가 멈추고, 제단이 제거되며, 레위 봉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폐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제사와 유월절에 대한 계명들은 여전히 기록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작동하는 체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단지 오늘날 순종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소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떤 법들은 “존중해야 하지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대신, 종교 지도자들은 새 의식 — 성찬 예식 — 을 만들고, 이 발명품이 이제 예수를 “기억”하고 그 희생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식탁에서 떡과 잔을 떼어 내어, 성전 밖에서, 율법 밖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세웠습니다.

성찬 예식이 상징적 순종인 이유

성찬 예식은 거의 어디서나 성전 제사와 유월절을 대체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나 어떤 건물에서든 빵을 먹고 포도주(또는 주스)를 마심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율법이 가리키던 것을 “성취”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상징적 순종입니다.

율법은 제단도 피도 없는 상징이, 명령된 제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법도 다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 이 새로운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 누가 집례해야 하는지
-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 누군가 참여하지 않으면 무엇이 되는지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발명한 것입니다(마가복음 7:7-9).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례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언약 갱신이라고 부르며, 이 의식 위에 거대한 신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복음서의 문맥 속에서 이해된 예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의식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된 성전 법은 여전히 서 있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상징적 예식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새 법을 발명하지 않고 예수를 기억하는 길

성경은 승천 이후의 삶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공경할지에 대해 방향을 줍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15). 또한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누가복음 6:46).

그분을 기억하는 길은 발명된 의식이 아니라, 메시아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과, 메시아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존중한다

율법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과 제사 제도는 영원한 규례로서 기록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제사장직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성찬 예식은 이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상징적 떡과 상징적 포도주가 순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찬은 성전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성찬은 토라에서 나오지 않았고, 예수께서도 그것을 나라들을 위한 새 독립 의례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킬 수 있는 것 — 성전에 의존하지 않는 계명들 — 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들은 대체물을 발명하지 않음으로써 존중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백을 인간이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참된 마음은 이 순종의 환상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वास्तव로 명령하신 것으로 돌아가게 합니다.